

【가나가와 경계 태세 발령에 대해】

후지사와 시민 여러분께

후지사와시장 스즈키 쓰네오입니다.

국가의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된 지 어느덧 2 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시다만, 얼마 전 가나가와현에서 감염 확대 주의를 일깨우기위한

「가나가와 경계 태세」가 발령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최근 신규 양성 감염자수가 낮은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사와시에서는 특히 7 월 이후에는 신규 감염자를 발표하는 날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행사 등의 개최 제한이나 관광진흥 등의 사회 경제 활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서서히 활발화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으로는 치료법이나 백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바이러스와의 공존」이라는 어려움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 분들께서는 이미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감염 확대 방지 대처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3 개의 밀(密) (밀폐공간 밀집장소,

밀접상황) 」 피해를 비롯하여,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에 철저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출 시 방문 시설 등의 감염증 대책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후지사와 시청 상담창구나 다니고 계신 병원 기관 등에 상담하십시오.

앞으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열사병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외에서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적당히 벗거나, 수분을 자주 섭취하기 등 감염증 예방과 열사병 대책에도 주의를 기울이시어, 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는 우리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감염증 대책을 철저히 지켜, 확대를 막아야 할 중요한 국면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후지사와 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22일

후지사와 시청 